

# 1

## 저출산보건복지실

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을 위한 도전

-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 때 자연스러운 출산율 상향 기대 -

○ (기본방향) 재정적·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, 충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보자

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및 인구감소 대응 선도적 추진

- 도-교육청 공동, 『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』 비전 선포( '19.4.23)
- 『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(1,543명)』 개최( '19.6.26) 및 임신출산 지원 등 연구

② 충남도, 선도적 역점 주요 시책

- 행복키움 수당 확대(구 아기수당) : 매월 10만원(13개월 → 24개월 미만)
- 충남아이키움뜰 운영(24시간 전담보육) : 개원( '19.4.23), 야간(150건), 주간(2,066건)
- 임신부 우대적금(3개 기관, 316건·3,441백만원), 부모부담보육료 지방비 지원
- 충남형 온종일 초등 돌봄센터 확대 추진 : 15개소(국비사업과 별개 추진)

○ (성 과) 행안부 저출산 평가 우수시책 경진 대회 시도 부문 (3위) 입상

# 2

## 해양수산국

대통령께서 「충남형 해양신산업」 적극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!

○ '19. 10. 10.(목) 대통령님 경제투어시 「충남 해양신산업 발전전략」 마련·보고

✓ 해양의 가치를 새롭게 발굴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충남도 의지를 높이 평가, 적극적인 지원 약속 ⇒ 해양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확보

\* 4대분야 : 해양바이오, 해양치유, 해양레저관광, 해양생태복원(역간척, 국가해양정원)

○ 해양신산업 4대전략 사업 착수('20년 국·도비 확보)

- 해양바이오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(서천, 인큐베이터 유치 350억 / 바이오뱅크운영 48억)
- 해양+산림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(태안 달산포, 해양치유센터 340억)
- 마리나, 서핑 등 사계절 체험형 해양레저관광 육성('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145.5억)
-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(2,715억원), 부남호 역간척(해수유통) 등 해양생태계 복원

‘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’ 충남이 해냈다.

- 보령화력 1, 2호기 2년 더 앞당겨 '20년 12월(←'22년 5월)폐쇄 확정! -

○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TF 및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

- (TF) 전문가·시민사회 등 구성, (범도민대책위) 道 327개 단체 대표자로 구성

→ 주민주도형 민·관 협치 거버넌스의 선도모델 및 모범 사례 마련

→ 2019년 “맑은 하늘상” 광역 지자체부문 수상 (환경재단)

○ 시도지사, 국회의원, 관련 부처 장관, 도 의회 등 탈석탄 공조체제 확충

-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선언, 국회토론회(2회),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간담회 및 도의회 정책토론회 등

○ 탈석탄연맹 주도국 및 그린피스 등 국제 기구와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

- 주한영국·캐나다대사 및 그린피스 총장과의 간담회, 아시아 에너지전환 라운드테이블 (11개국)

→ 아시아 탈석탄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각종 국제 행사를 충남도에 유치

⇒ 도민의 건강권·환경권·경제권 수호를 위한 청정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교두보 확보

“119와 함께하는 행복한 출산” 전국 최초 「분만의료 취약지역 임산부 구급서비스」

○ 분만은 산모와 태아에게 잠재적 응급상황으로 신속한 대응 필요하며 분만의료 사각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보호와 출산환경 개선 필요(저출산 극복)

○ '18. 12. 1부터 농·어촌 등 분만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(4,130명)의 임신정보를 사전 등록하여

119신고접수 즉시 신속한 출동과 맞춤형 응급처치, 안정적인 이송, 귀가 등 안심 구급서비스 제공

↳ (이송기반 조성) 멸균분만세트 전 구급차 적재(104대), 응급분만 등 전문교육 이수(구급대원 300명)

○ (운영실적) 임산부 이송 558명(출산 16, 복통·진통 124, 하혈 38, 진료 15, 기타 50, 영아 315)

① 현장도착시간 단축(5분 1초 → 4분 38초) ② 임산부 맞춤형 응급처치 제공 ③ 분만의료취약지역 임산부 불안감 해소

④ 구급대별 여성구급대원 1명 이상 배치(신체노출 부담 해소) ⑤ 다문화가정 임산부 3자 통화시스템 제공

○ (수상실적) ①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('19.7월) ② '19년 충남 상반기 부서 혁신 우수사례 최우수 선정 ('19.8월) ③ '19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'19.11월

## 2년 연속 유네스코 세계유산(Unesco World Heritage) 등재

- 2019년 논산 돈암서원, 2018년 공주 마곡사 연속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
  - ⇒ 국제기구가 인정한 최고의 유산으로 도민 자긍심 제고
- 세계유산을 활용한 유산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진흥
  - 예 힐링캠프 등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
  - 돈암서원 예학관 및 한옥체험마을 운영(2020년 개관)
  -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,300억원 반영(2028년 완성)
  -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 280억원 반영(2021년 완성)
- ⇒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충청유교의 국제화, 도민 체감 유교활용사업 구체화

“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.”

## 유관순열사 서훈 1등급 추서

- 이화학당 학생으로 서울 만세운동에 참여하고,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
  - 3·1운동 1주년 옥중 만세운동 전개, 옥중에서 서거(1920.09.28.)
  - 1962년 상훈법에 의거하여 「건국훈장 독립장」에 추서
- 3·1독립운동은 유관순 열사로 귀결될 만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국민의 마음과 정신 속에 살아있는 독립운동의 상징
  - 열사는 대한독립운동의 상징을 넘어 전세계 비폭력 저항정신과 자유의 영웅
- 서훈등급 상향 청와대 국민청원운동( '18.5.~6.), 결의문 채택( '19.1.), 행안부 등 대정부 건의( '19.2.7.),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( '19.2.20 ~)
  - ⇒ 유관순열사 건국훈장 독립장(3등급) ⇨ 대한민국장(1등급) 추서
    - ※ 사회적 평가와 민족사적 의미를 고려한 올바른 평가이며, 희생에 대한 보답

충남도정 최초 100만인 서명달성! 220만 도민의 염원 충남혁신도시 지정 첫 관문 통과

- 충남도정 최초 100만인 서명 달성으로 충남도민의 하나 된 힘을 보여주어 중앙정부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냄.  
⇒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(11. 28.)
-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일자리 창출, 인구증가 및 세수가 증가하고 지역업체와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.  
⇒ 수도권공공기관 10개, 관련업체 50개이상 이전 기대
- 지역인재채용 소급적용을 위한 혁신도시법이 개정 공포됨  
⇒ 도내 고등학교, 대학교 졸업생들을 충청권 공공기관(수자원공사, 코레일 등)에서 단계적으로 30%까지 의무채용하게 되어,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1,300명이상으로 확대됩니다.(2개 공공기관⇒ 51개 기관 확대)

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1위,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충청남도

- 도, 시·군 공동 노력으로 “합동평가 역사상 최초 2년 연속 전국 1위” 달성!
  - 중앙정부(25개 부처)에서 17개 시·도 대상으로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한 합동평가 실시
  - ※ ' 19년 평가 결과 : 155개 지표 중 104개 우수성과\* 달성 + 국민평가단 총 5건 중 2건 선정\*\*
  - \* 정량 123 중 89개, 정성 32개 중 15개, \*\* 국민평가단이 선정하는 5건 중(104개 지표 중) 2건 선정
  - ※ ' 18년 평가 결과 : 11개 분야 중 “가” 등급 9개, “나” 등급 2개 달성
  - 국가 재정인센티브(특별교부세) 총 35억원 확보(2018년 21억원, 2019년 14.09억원)

숨쉬기 좋은 푸른 하늘, 맑은 공기 충청남도가 앞장 서 나갑니다.

-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초과달성,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(2천만원 상금)
    - '18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감축률(충남 46.1%로 탁월, 전국 광역도 평균 18.8%)
  - 전국 최초 환경교육도시 선언으로 도민 스스로 환경문제 해결방안 마련
    - 환경교육발전 기관 표창(환경부장관), 광역지자체 유일 충청남도 '1곳' 수상
  - 전국 최초 청정연료전환(병커C유 → LNG·LPG) 30개 기업 협약 체결(8월 30일)
    - '21년까지 102억원 투입, 온실가스 27%(3.5만톤/연), 대기오염물질 80%(204톤/연) 감축
  -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('22년까지 8만톤 감축목표)
    - 발전3사, 현대제철 등 20개사, 총투자금액 4조4,343억원('22년까지)
- ⇒ 충청남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확대 실시를 통해 친환경을 넘어 **필환경** 정책을 주도하는 등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갑니다.

도내 75세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, 충남 대중교통 정책의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

- 충남거주 75세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  - 대도시권과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, “버스” 외 교통수단 부재로 인한 교통비 경감
  - 어르신들의 여가·병원진료 등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
- 충남형 교통카드 이용, 버스비 무료화 사업 시행(' 19.7.1)
  - 총 185천명 중 138천명 신청, 137천명 발급, 5,310천건 이용중( '19.11월말)
- '20. 7월, 지원대상자를 국가유공자, 장애인 확대 시행 예정
  - ⇒ 노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수혜형평성 유지로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및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